

孫 “분당에서 승리해 변화 이끌겠다”

경기지사 시절 업적 홍보로 중산층 표심 공략 ‘조용한 유세’속 젊고 역동적 이미지 연출 총력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조용한 변화’를 모토로 바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미래를 위한 선택’에 방점을 두고 경기지사 시절 업적을 홍보하면서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6시30분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손 대표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민심의 스킨십에 나섰다.

특히, 손 대표 측에서는 당 보다는 개인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손 대표의 플래카드에는 민주당명을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표기해 있었으며 플래카드 색깔도 민주당의 초록색이 아닌 흰 색이었다.

또한, 강봉균, 원혜제, 김재연, 이찬열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도 손 대표와 거리를 두고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손 대표가 이번 선거에선 내세우고 있는 캐치 프레이즈는 ‘변화’로 집약되고 있다. 손 대표 역시 출정문에서 “즐거운 변화를 만들겠다”, “행복한 투사가 되겠다”며 밝은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인 분당에서 승리,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겠다”면서 “분당의 민주시민에게서 변화가 보인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또한,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연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손 대표가 출근 인사 후 IT(정보기술)기업인 네오위즈 게임즈를 방문, 명예 사원증을 받고 게임을 시연해보는 일정을 잡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과거 경기도지사 때 벤처기업단지인 킨스타워와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유치한 실적을 알리면서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첫날 악수하는 강재섭-손학규 4·2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14일 오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왼쪽)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분당 미금역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는 분당구 내 근로자 1만5천 명이 IT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네오위즈 게임즈를 방문한 직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본사 앞에서 유치를 위해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한편, ‘아권연대호(號)’에 함께 승선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을 맞잡을지도 관심사다.

실당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선거전이 돌아오고 박빙의 관세가 이어진다면 선거 막판에 유 대표가

진급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후반에 극적으로 결합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유 대표는 전날 김해를 단일화 과정에서 중재를 맡았던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전에서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문 이사장은 야권 공동선대위의 상임고문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 486인 민주당 최인호 부 산시당위원장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업대책 없으면 한-EU FTA 비준 불가”

최인기 의원 주장

민주당 소속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4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EU, 한·미, 한·중 FTA 체결로 15년 동안 42조8000억원의 농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

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농업 분야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FTA가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인 농업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선 대책, 후 논의’ 원칙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EU FTA 발효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책임 있

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만 국회 비준이 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업 보호 대책으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조기 도입 ▲농가부채경감법 제정 ▲폐업지원제도 운영 연장과 피해보상 현실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 적용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업 분야에 투자 등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화 홍보 앞장서야 할 특급호텔이 한복 홀대라니...”

신라호텔 뷔페 레스토랑이 한복 입은 손님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일류 호텔에서 일어난 상황인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야 할 특급호텔이 전통문화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호텔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난 것”이라며 “취할 수 있

문방위, 강력 비판 정병국 ‘엄중 조치’

는 모든 조치를 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일”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자녀 결혼식 때 한식연회를 제공하는 호텔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특급호텔의 한식당 외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상위 10개 호텔 중 한식당을 경영하는 특급호텔은 고작 4개

고 700점 정도의 호텔 평가기준 중 한식당 유무에 대한 배점은 5점에 불과하다”며 “특급호텔의 한식당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급호텔에서 한식당이 없어지는 추세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평가기준에서 한식당 유무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특급호텔에서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박근혜 전 대표 대통령 특사 유럽 방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를 방문한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표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이 되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를 방문해 3국 지도자에게 양국 발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와 기대를 전달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특사 방문 기간 베아트리스 네덜란드 여왕, 아녜스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카를로스 파울리아스 그리스 대통령 등 각국 국가원수를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박선숙 ‘공정위, 삼성 봐주기’ 의혹 제기 삼성전자 무혐의 비율 28%... 평균의 10배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08~2010년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무혐의 비율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공정위가 유독 삼성전자에 관대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지난 2년간 공정위 전체 의결 사건 중 무혐의 의결은 전체 의결의 2.4%(1888건 중 46건)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은 7건 중 2건(28.6%)으로 전체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

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20%)을 적용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봐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판정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삼성에 대한 법 적용과 의결이 이처럼 엄정하지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성장 성과가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박계 “재보선 불개입” 박근혜 강원行 없을 듯

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 나서야 하는 만큼 선거 불개입 원칙을 깨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지사

선거나 박 전 대표는 이미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고문 자격으로 지난달 15일, 29일 두 차례 강원도를 찾은 이후 별다른 방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이날 “특위 활동은 선거기간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속 한 친박 의원은 “특위 일정이 아니라면 박 전 대표가 강원도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친박 일각에서 차기 대권행보를 감안할 경우 박 전 대표가 강원도에 더 애정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4·27 재보선 지원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직접적인 선거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박계 의원은 14일 “국정을 엉망으로 해놓고 선거에서 질 거 같으니가 표를 얻기 위해 박 전 대표의 얼굴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국무위원이 친이(친이명박)계 계파로만이나 하면서...”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는 “반이 박 전 대표가 재보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취업률 80% 이상 보장!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인재육성아카데미 5기)

- 참가자격 : 대학 4학년(전문대2학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 접수기간 : 2011년 4월 6일(수) ~ 4월 19일(화)
- 교육기간 : 2011년 5 ~ 11월 / 주1회 (11월8시간)
- 교육비 : 전액 무료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각 1부(반회왕식사용)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4.22) → 합격자 발표(4.26)
- 참가지특성 : 교육비무상, 취업컨설팅/연계, 기업체추천
- 수강과목 : 6개 과목 중 한 과목 선택 수강신청

구분	과정명	연수기간	요일	장소	인원	비고
수강과목 (택1)	① 무역실무	7.1~8.31 주1회	월	아카데미	20명	협업대학 재학생 학점인정
	② 영업실무		화	아카데미	30명	
	③ 생산관리&품질관리		수	아카데미	30명	
	④ 기본OFFICE&실무수습		목	조선대학교	60명	
	⑤ 유통&디제잉실무		금	아카데미	20명	
	⑥ 프로젝트관리		토	아카데미	30명	
기본과정 (필수)	CEO,CTO,CHO특강	5.6,9,10,11월2회	목	조선대학교	전체 연수생 분반 교육	
기업실무문제해결과정	금&토		아카데미			
의사소통능력개발과정	토~수		서울/경기 기업연수원			
행사	에버신임사원연수	6.25~29	토~수	서울/경기 기업연수원		

○ 신청서류 : 인재육성아카데미 교육규 (광주 동구 장동 31 KT광주지사 2층)
○ 문의 : T.062)224-7733 / F.062)224-7736 / H.010-3635-8396

무용사장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정찬웅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 년 9%~
- ▶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박영학
계정유권이자율: 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 최저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 최저 13.3%~44%(연체금리 44%)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라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현영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양동 ↑ 육교 횡단보도
전대정문 → 백두산중고매장 → 운영중 → 백두산중고매장 → 운영중 → 백두산중고매장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